

“사슴은 지금 소음과 전쟁 중”

- 경기 화성, 충북 진천 피해 사례 -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연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 1호선 광주 장성간 확장 공사,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 공주간 4차선 국도 건설, 경기 화성 신도시 택지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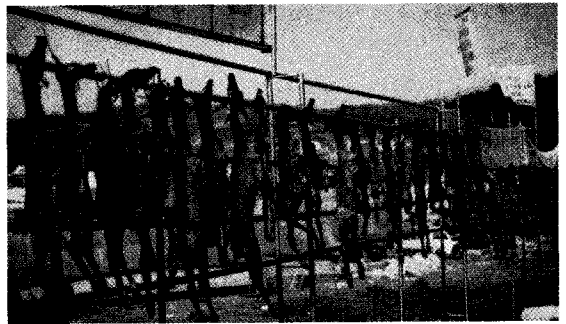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들로 인해 공사 현장 인근 사슴농장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농장과 시공사측이 합의에 성공한 농장이 있는가 하면, 합의를 찾지 못해 관련기관에 중재를 신청해 놓은 곳, 시공사측에서 공사를 강행해 사슴들이 대단위로 죽어 나가고 있는 곳도 있다.

공사 강행으로 인해 사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흥진사슴주말농장과 항공기 폭음으로 인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진천의 장학사슴농장을 살펴봤다.

■ 경기 화성 흥진사슴주말농장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위치한 흥진사슴주말농장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농장 초입에 전쟁터 패장들의 머리를 효시하듯 사슴 수십여 마리가 철과이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있다. 역시 농장 초입에 서 있는 트럭에는 커다란 확성기가 장착된 채 정부와 토지공사측을 비난하는 문구와 함께 죽은 사슴들이 여러마리 매달려 있다. 굳게 잠겨진 농장 현판을 밀고 들어가자 농장 가운데에 2개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망루에 설치

된 확성기에서는 시공사측을 비난하는 방송이 연신 터져나오고 있었다.



▲농장 진입로에 죽은 사슴 수십마리가 걸려있다.

‘흥진주말사슴농장’은 현재 그 명칭과는 다르게 사슴농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사슴장은 사슴 무릎까지 올라올만큼 진흙창 투성이며 그나마



▲농장내에 설치한 망루, 토공사측을 비난하는 문구가 나부끼고 있다.

마른땅에는 상모습으로 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 꽤 많은 암사슴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엘크 자국은 단 2마리.

흥진주말사슴농장은 1년전까지만 해도 500여마리가 넘는 사슴이 뛰노는 대규모

사슴농장이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동탄신도시의 시범단지로서 예정된 화성시 태안읍 능3리에 위치한 흥진사슴주말농장에 토공측은 지난해 4월까지 농장이주 보상비 3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이주를 결정한 흥진사슴측은 배수를 위해 해마다 사슴장에 깔아온 석분을 지난해에는 깔지 않고 이주보상비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약속했던 이주보상비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급기야는 7월에야 이주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미 우기를 맞이한 농장은 배수가 되지 않아 사슴장마다 물이 흥건했다. 이주 뒤에 분만을 계획했던 엘크 암사슴 300마리에서는 자락들이 속속 태어났다. 무릎까지 진흙창이 올라온 사슴장에서 태어난 자락들의 앞날은 뻔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락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슴들도 불결한 환경에서 오래 목숨을 이어가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경에는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된 농장 인근에 있던 공장 및 주택 등을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면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사슴들이 놀래 흥분하여 뛰고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성록들이 죽어 나갔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이주보상비만을 받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흥진사슴주말농장 대표인 이홍열씨와 박정옥씨는 죽어 나간 사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토공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토공측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급기야는 지난해 10월 농장 인근에 '사슴농장 주변 소음



▲석분을 깔지 않아 배수불량으로 사슴무릎까지 진흙이 올라와 있다.



▲가두시위에 사용되는 트럭.

금지'란 경고문을 무시한 채 대형트럭을 이용해 수십년 생의 나무 등을 옮겨 심는 조경공사를 강행해 더욱 많은 사슴들이 죽어 나가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흥진사슴측은 더 이상 정상적 농장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토공측에 농장 전체에 대한 피해보상비 44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소음으로 인해 죽어 나간 사슴은 중앙환경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주보상비 지연으로 인해 폐사된 자락들은 재판을 통해 받아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토공측의 무성의한 답변에 분개한 흥진사슴측은 농장진입로에 철과이프를 설치, 사슴 사체를 진열한데 이어 농장 곳곳에 토공측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함께 망루 2개를 설치, 주야로 확성기를 통해

토공작을 비난하는 방송을 들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죽어 나가는 사슴도 계속 늘어났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흥진사슴측은 이미 앞뒤를 짚 여유가 없어진지 오래다.

■ 충북 진천 장학사슴농장

2000년 10월 4일, 날아가던 비행기가 연료통을 떨어뜨렸다. 황당할 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은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충북 진천에 위치한 장학사슴농장 대표 민병철씨를 괴롭히고 있다.(본회 회보 2001년 5월호 게재)

조용하고 평화롭던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에 난리가 일어난 것은 2000년 10월 4일 오전 10시경. 난데없이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이 울려 퍼졌고 인근 식품하역장에서 작업을 진행중이던 직원들은 차 밀로 몸을 피신시키는 등 원인 모를 폭음에 한참을 공포에 떨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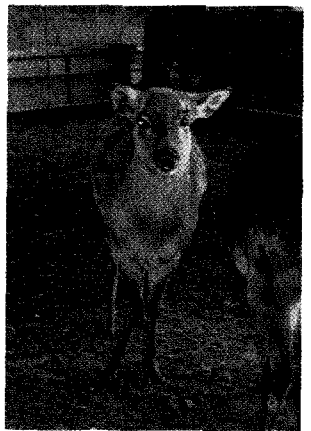
폭음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날아가던 전투기가 연료통을 떨어뜨린 것.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 팬텀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연료탱크 이상으로 외부 연료보조탱크 두 개를 떨어뜨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연료통 두 개는 배추밭과 묘목을 심어 놓은 곳으로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바로 코앞에 사슴농장이 있었던게 문제였다.

사슴농장과 불과 10m 거리에 떨어진 연료통은 엄청난 폭음을 야기시켰고 소음에 민감한 동물인 사슴은 이 굉음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폭음에 놀란 사슴은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과정에서 축사에 부딪치며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 그나마 외형상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슴들도 당시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사된 사슴

하고 습식을 거부하는 식욕절폐 현상이 나타났고 앉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활력도 떨어졌다. 당시 합사를 끝내고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던 암사슴들에게선 이듬해 3월에도 승가를 실시하는 늦



▲사고의 충격으로 다리가 발정현상이 나타났던 사슴
났다. 당시 폭음으로 인해 유산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는 군법무관과 수의사를 긴급히 농장에 파견,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총 피해금액으로 9백65만원을 제시했다.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지만 농장 정상화가 시급했던 민병철씨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수락했고 사슴치료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피해상황은 민병철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청주종합동물병원 고철환 수의사와 함께 밤낮으로 사슴치료에 매달렸지만 죽어 나가는 사슴이 속출했다.

정성스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슴들로 인해 속이 타들어 가던 민병철씨에게 또 한번의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9백65만원의 피해금액을 제시했던 공군측이 뜬금없이 피해금액으로 16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이다. 160만원이면 피해금액은 고사하고 그동안 사슴 치료에 들어간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공군측의 어이없는 결정에 민병철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제고의 여지가 없음을 밝히고 “이것만 받고 끝내던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 받아가라”는 식의 배짱으로 일관했다.



▲다리골절로 기브스를 실시한 사슴



▲자가치료에 사용된 약품 및 기구

주변 양목인들로부터 '점잖은 양반'으로 소문난 민병철씨도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농민을 '만만하게' 보는 공군의 처사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병철씨는 사슴 전문, 수의사 및 각 대학의 전문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한편, 각종 논문 및 연구자료,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 결과 ▲ 사슴 진료비 ▲ 폐사 사슴 ▲ 녹용 생산량 저하 ▲ 암사슴의 유, 사산 ▲ 자육 가격 저하 등을 묶어 총 5천9백여만원에 이르는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각종 자료가 수집되고 피해금액이 산출됐다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공군”을 상대로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3년간 총 6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공군 ▲ 축산 전문 변호사 부재 ▲ 동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판사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재판으로 소요된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지칠법도 하련만 이번 사건에 대한 민병철씨의 의지는 확고하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지 모르지만 정당한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시간, 비용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제2, 제3의 유사사건에 대한 선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코 대충 마무리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싸움. 그러나 거대기관의 횡포에 휘둘릴만큼 농민은 약하기도, 또 만만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병철씨는 오는 4월 9일 또다시 재판길에 오른다. **한양**